



# 무·배추 포장유통 의무화에 따른 산지유통인 입장

## Packaging of Radish and Chines Cabbage

이 광 형 / (사)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무·배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밭작물 중의 하나이다.

농가 구조는 유럽과 달리 영세한 소농, 다품목 생산체제로서 영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지의 경작 여건도 경사지가 많아 매우 취약하다.

또한 품목의 특성상 과일류 보다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상대적으로 유통비용이 높고, 저장성도 떨어져 부패, 변질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유통단계 또한 복잡하여 물류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특성과 산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무·배추 포장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그 동안 포장재비의 30%와 수확상차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포장유통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명칭도 변경하고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무·배추 포장유통이 의무화 되며, 사업예산도 대폭 증액하여 규격포장출하 정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포장유통 추진 의무화 정책은 따지고

보면 과도한 물류비용을 절감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왕 정부가 무·배추의 포장유통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상·하역 기계화가 수반될 수 있도록 산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포장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산지에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수확, 선별, 상차 작업이 노령화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각 있는 출하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표준화, 규격화, 브랜드화를 통해 상품성 제고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산지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는 선진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97년 5월 가락시장에 포장 배추가 95% 이상 출하되었던 부분도 상품성 향상을 통한 수취가 제고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도매시장 내 분산의 주체인 중도매인들도 과거에는 산물로 반입된 무, 배추를 선별하여 다듬는 과정을 거쳐 상품화 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

매시장 내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다듬기작업 기피현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렸고, 산물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모와 쓰레기 발생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 등은 유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도매시장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대두되자, 비용절감을 위한 포장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포장출하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서로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주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쩌면 중도매인들이 더 포장을 서둘러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장화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통 주체 간 의견이 다르다. 분명한 것은 출하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유통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전국 도매시장의 무, 배추 유통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 등이 합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2006년 가락시장 무, 배추 포장유통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같은 해 정부와도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무, 배추 규격포장 시범출하 사업에 적극적으로 연합회 회원들이 동참하여 포장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동안 수도권 8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출하되었던 산물 무·배추를 산지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유통주체들 간에 이해관계를 떠난 자율적인 합의가 수반되었기에 가능한 일

이다. 그래서 무, 배추의 포장유통 성공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중요한 것은 규격 포장출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실질적인 수취가격 제고를 통해 출하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정책이니까 무, 배추의 규격 포장출하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시행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지만, 그 동안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마냥 찬성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시범출하 사업에서 보듯, 무·배추 규격포장화 사업은 오히려 유통비용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대와는 달리 역기능의 폐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첫 시발점으로 규격포장 출하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무·배추를 산지에서 선별·포장하면서 발생하는 출하자의 비용 상승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드시 전가되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배추는 근본적으로 수급의 영향에 따른 가격 등락폭이 포장을 좌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폭락장세에서의 포장유통 출하를 통해 경험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의 크나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포장 출하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더불어 무·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기능 그리고 산지와 소비지의 인프라 구축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



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해주길 기대하면서 산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작기 별로 생산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경사지가 큰 곳은 피하고, 멀칭 비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생산된 상품의 크기가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선별이 미흡하다, 속박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중도매인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가격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는 산지 포장 수확작업 인부의 노령화와 포장재 관리창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산지의 노령화로 무, 배추를 선별 포장출하 하고 싶어도 작업 인부가 없어 농산물을 제 때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산지별로 무, 배추 포장을 위한 산지 이동포장 센터가 필요하다. 포장센터에서는 작업조가 이동할 수 있는 차량과 숙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포장재를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창고와 설비 그리고 저온창고 등이 산지에 투자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품질과 규격에 맞는 종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즉 맛과 크기 등 용도에 맞는 종자 선택이 중요하다. 최근 어느 가공공장에서는 김치의 주 재료를 구입하는데 크기는 물론 품종까지도 발주사항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로는 규격포장 출하품은 산물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출하자의 수취가격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시범출하 기간에 규격포장 출하품은 기대에 못 미친다. 요즘 소비자들은 무조건 가격이 싼 것보다는 신선하고 안전한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방향으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

는 만큼, 소비자 신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아도 무, 배추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생산자 및 출하자들은 포장으로 인한 유통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는 무, 배추용 포장용기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포장용기로는 그물망, PE포대, 골판지상자 등이 있으나 PE대와 그물망은 하역기계화가 어려운 구조로 물류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없다. 골판지 상자의 경우에도 우천시 작업중단 및 작업 재개 시 시간이 소요되며, 부분적인 함몰 등으로 상차 후 무너질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또한 상품 대비 박스제작 비용 부담이 과중하며, 제함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산지의 문제점 등을 참고로 하여 포장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규격포장유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포장재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골판지의 경우, 매당 구매기준 단가가 800원인데 정부지원은 기준단가의 60%인 480원으로 정율제로 지원된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외에도 320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여 5톤 트럭(720박스) 기준 이십삼만사백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게다가 포장작업 비용이 산물작업보다 인건비가 더 많고, 작업 소요 시간도 더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무·배추 포장유통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포장재 등 비용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체계적인 추진과 과감한 지원 등이 있어야 향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